

22.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

2012. 5. 27.

금빛 새벽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3,4장에 나타난 사건과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하여 계시 하십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함께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 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4: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1. 목사님,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할 때 참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서 3장의 예언적 의미를 살펴볼 시간인 것 같은데 3장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어떤 예언적 표상이 됩니까?

답: 우리가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성경은 그 전체가 예언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의 사건이나 모두 구원 사업에 대한 표상적 예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 3장이나 4장이나 모두 예언적 표상이 되지요.

2.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건도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까?

답: 당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은보철 진흙으로 된 우상의 꿈을 꾸었고, 그것이 세상의 역사적 미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 친구들을 도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얼마 후에 바벨론 내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연대기를 적은 점토판을 판독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10년 9,10월에 심각한 내부 반란이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었어요. 거기에는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적들을 사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595년 12월부터 594년 1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 영토와 식민지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충성맹세를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느부갓네살 기념 비문에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토록 세웠노라.”라고 적었거든요. 이때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충성맹세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만든 우상은 2장에 있는 꿈에 본 그런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지요. 꿈에 본 것은 머리

만 금이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이었지요.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장래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려는 노력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선악간의 대 쟁투의 어떤 국면이든지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3. 그러면 다니엘 3장의 이 사건이 복음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예언적 사실이 있습니까?

답: 느부갓네살은 왕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면서 충성맹세를 이유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벌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제거하려는 것이지요. 사단은 2장에서도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했지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박사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역대로 사단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홍수도 그런 사건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를 제거하려는 목적이었고, 헤롯왕을 시켜 예수님과 같은 때에 난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씨를 보존하십니다. 다니엘 3장의 두라 평지의 순금 신상과 거기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 천사에 드러내셨습니다. 평일보다 칠배나 뜨겁게 타는 풀무 불 속,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그런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놀란 왕이 그들을 불러내어 보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에 그슬린 냄새도 없었지요. 왕과 관원들이 얼마나 기 막히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그 크고 두렵고 웅장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와 관심은 사라졌지요. 아마 올 때는 우상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삼시간에 바벨론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 속에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경로로 온 세상에 삼시간에 전파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역사적 표상입니다.

4. 정말 삼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방방곡곡에 다 퍼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복음이 삼시간에 전파되는 경로라고 했는데, 우상과 복음 전파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예, 이 3장의 우상은 마지막 때의 우상 경배와 관계됩니다. 6장 사건도 우상 경배라는 관점에서 같은 맥락인데 6장을 공부할 때 말하기로 하고요, 우상은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두라”라는 말은 “거주지” 곧 사람들이 사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구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닙니까. 그 거주지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온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우상을 예언적으로 나타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 손에 표를 주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있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단3장이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상합니다. 그때 세 유대 사람과 같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삼시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마24:14), 현재 사정으로 보면 백년하청이지요. 그러나 다니엘 3장 같은 일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아니겠어요. 로마9:28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 예, 그렇게 복음의 표상이 되는군요. 즉 복음 전파의 표상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답: 복음 전파의 표상만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의 표상도 되지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왕은 이렇게 조서로 선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단3:28)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 된 장한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고, 왕을 비롯하여 온 바벨론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을 살라 죽게 하도록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지요. 3장에서 더 많은 사실을 찾을 수 있지만 3장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4장으로 넘어가지요.

6. 그렇게 하시지요. 3장의 사건은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목사님, 4장은 또 꿈 이야기입니다.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꿈 내용은 기억하는데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듣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답: 4장 4절에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전성기에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애굽 정복을 마친 후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한 때가 기원전 568년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때쯤 평안을 즐기던 중에 꿈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꿈 내용을 말해줬지만 그들은 역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일들을 모른다는 사실이 확실히 폭로되었지요. 이때 다니엘이 박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 물으면 되는데 아마도 왕이 지난 번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말씀해주면 해석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꿈을 말해주면서 그들의 실상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멋대로 지어낸 해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개인 신앙고백 조서의 내용이지요. 이 경험으로 느부갓네살은 이

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아요. 조서 내용이 그랬습니다.

7. 꿈의 내용과 해석이 어떤 복음적 사실을 나타내는지 말씀하시지요.

답: 느부갓네살의 꿈은 땅 중앙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였고,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거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혈기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식물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한 순찰자가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단4:14~17)고 했습니다. 이것이 꿈 내용인데 참 두려운 내용이지요.

8. 그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다니엘은 꿈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병병한 상태로 왕 앞에 서 있었지요. 다니엘의 반응을 보고 왕은 그 꿈이 길몽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기피할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그대로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단4:19)라고 말하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꿈이 왕에게 아주 흉몽이라는 것을 미리 말한 것이지요. 이제 성경에서 그 해석 내용을 읽도록 하지요.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단 4:20~26절입니다.

[단4:20~26]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떨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

하리이다.

감사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꿈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27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 꿈을 주시거나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언으로 보여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권고에 유의하고 그렇게 했다면 꿈에 보여준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1년이라는 기회를 그냥 보내며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1년이 되었을 때 왕궁 지붕을 거닐며 화려한 바벨론 시가지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왕은 졸지에 정신병자로 전락하여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 상태를 왕은 조서에 다 기록하여 온 국민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짐승처럼 지낸 사실을 읽어보시지요. 28~33까지입니다.

[단4:28~33]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 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33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왕이 완전히 짐승처럼 생활한 것을 가감 없이 고백했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9. 오늘날 세계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답: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진화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학문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애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오늘날 아주 고등 학문으로 사람은 짐승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 결과 사람들은 짐승의 본성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 같아요. 폭력이 그렇고 성문란이 그렇고

약육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것이 1859년인데 이제 겨우 154년쯤 되었는데 학문과 사회상을 설명하는 언어들이 진화론적입니다.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진화론에서 사용한 말이지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에 겪게 되는 인간성의 상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10.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설명이 진화론적이네요. 국립공원을 가도 그 형성에 대한 설명이 모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인성을 말살하고 사람들을 짐승의 성질로 안내하는 학문이 된 것 같네요. 정말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인간이 진화론에 빠진 상태를 묘사해 주는 사건이 맞은 것 같군요.

답: 성경에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49:20을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존귀에 처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4장은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11. 예,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참 성경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 옛날에 진화론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기록했으니까요.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위세가 등등한 왕이지만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짐승처럼 된 사실을 통하여 존귀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재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시며 구원의 주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